

# '23년째 5000만원' 예금자보호한도 또 묶이나

## 21일 TF 최종회의

23년째 '1인당 5000만원'에 묶인 국내 예금자보호한도가 이번에도 변동 없이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2금융권의 건전성 불안 등이 우려되면서 예금자보호한도를 높게 되면, 급격한 자금 쏠림이나 도덕적 해이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이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운영해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관련 최종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는 TF 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TF 연구 용역을 담당한 민간 전문가, 은행·저축은행·보험 등 업권별

## 내달 국회로 공 넘길 듯...2금융권 불안에 '현행 유지' 무계 "한도 상향때 저축은행으로 예금 최대 40%↑...쏠림 우려"

관계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게 된다.

TF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예금자보호한도와 관련해 ▲보호한도 5000만원으로 현행 유지 ▲7000만원에서 1억원 등 단계적 한도 상향 ▲일부 예금별도 한도 적용 등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째 '1인당 5000만원'에 묶여있다.

각종 시나리오가 보고서에 담겼으나, 정부가 '현행 유지'를 택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금융권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로 한도 상향 논의가 탄력을 받았을 때쯤은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지금은 한도 상향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2금융권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선불리 한도를 높였다가 시스템 리스크로 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금융권 예보로 인상 부담이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점, 불가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부모 예금

(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98%를 넘는 등 한도 상향의 실익이 일부 '현금 부자'에게만 국한된다는 점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도 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한도가 오를 때 예금자가 금융기관 건전성보다는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며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말 회의에서 '정부안'이 하나로 확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F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하나의 결론을 정하는 형태

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회의를 거쳐 수렴한 의견들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23년째 그대로인 보호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해 논의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작년 기준 한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은 1.2배로, 영국(2.3배)과 일본(2.3배), 미국(3.3배)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인 것과 달리 국내는 5000만원을 유지해온 탓에 경제 규모 및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민석 기자 mskim@연합뉴스

## "추석 명절, 이웃과 함께 해요"

### 광주은행-광은리더스클럽, 화순 노인시설 등에 후원금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18일 '광은리더스클럽'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나눔 행사를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회원들은 순천지역 노인 주거복지시설인 '에광마을'과 노숙인 재활시설인 '디딤밭'을 찾아 후원물품과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은리더스클럽은 광주은행과 함께하는 지역 우수 중소기업 CEO 모임으로 2007년에 창립해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광은리더스클럽은 매년 지역 복지시설과 광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감으로써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여 지역민께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는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고병일(왼쪽 다섯번째) 광주은행장과 광은리더스클럽 회원들이 노숙인 재활시설인 '디딤밭'을 찾아 후원물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기아 오토랜드 광주 파트장협의회, 취약계층에 한과 전달

기아 오토랜드 광주 파트장협의회는 18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이웃들을 돕기 위한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들은 추석 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쌀강정을 직접 만든 뒤 광주장애인문화협회에 전달했다.

파트장협의회 회원들과 광주장애인문화협회 회원들은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전달할 쌀강정 제작에 직접 참여했다. 이렇게 만든 쌀강정은 400만원 상당으로 전달식을 통해 광주지역 장애인 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 150여 가구에 보내질 예정이다.

정관중 파트장협의회장은 "이날 전달된 쌀강정이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이웃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한다"며 "파트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 오토랜드 광주 파트장협의회는



지난 18일 광주장애인문화협회를 찾은 기아 오토랜드 광주 파트장협의회가 직접 만든 쌀강정을 전달하고 있다. <기아 제공>

2020년부터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급구호물과 편백나무 베게 등을 전달한 바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농협 광주본부, 추석 명절 '식품안전 합동 특별상황실' 운영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오는 10월 9일까지 광주광역시와 함께 '농협 식품안전 합동 특별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본부는 식품안전 특별 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직거래센터,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식육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특별점검 사교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점검기간 동안 관내 유통사업장에 대해 ▲원부재료 및 판매제품 보관온도 관리상태 ▲작업장 및 작업자 위생상태 ▲어류철 고위험군 식품관리 상태 ▲원산지표시 ▲유통기한 경과여부 ▲식품보존 및 보관방법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고성신 본부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농협 판매장에 대한 철저한 식품안전 점검 및 예방활동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농협이 되도록 전 임직원이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0일 지역의 한 하나로마트를 찾아 고성신 농협 광주본부 본부장이 농수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 보해양조 '임직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주류전문 기업 보해양조(대표 임지선)는 18일부터 19일까지 장성공장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임직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사진> 장성군 보건소와 연계해 추진한 이번 프로그램은 바쁜 직장생활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여유가 없는 임직원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해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사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신질환으로 이행되는 것을 막고자 우울증 척도 검사와 정신 건강 인식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뇌파 검사 측정기 '유니핏'을 사용해 두뇌 건강 검사까지 가능하다.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유선 상담을 진행한 뒤 심층 상담을 원할 시 매주 수요일 장성군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상담프로그램과 정신의학과 전문의 치료를 연계한다.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지원사업을 통해 진료비 부담도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신건강 검사가 끝난 뒤에는 '나만의 향수 만들기' 등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나라마오 일 종류에 따른 스트레스 관리 효과를 알아보고 각자에게 필요한 향수를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졌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스트레스 없이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겠다"며 "직원들의 호응에 힘입어 오는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더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해양에너지 ESG위원회 출범 (주)해양에너지는 19일 제 9차 ESG위원회와 함께 'ESG위원회 2기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ESG위원회 2기는 행정·학계·언론·시민단체·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촉기간은 2년이다. <해양에너지 제공>

## 납품대금 연동제 내달 4일 시행...연말까지 제도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해 약정서 기재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수·위탁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며 연말까지는 제도기간이 운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의무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 계약 기준,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 달 4일 이후에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 약정을 체결, 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대상은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조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등이다.

연동제 적용이 제외되는 단기계약은 수·위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규정됐다.

위탁기업이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

나 유도하면 벌점 5.1점, 조개기 계약 등 그 외 유형 탈법행위는 벌점 3.1점을 각각 부과한다. 3년간 누계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통기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는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기간을 운영한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59.21(-15.51)
↓ 코스닥	883.89(-7.40)
↓ 금리(국고채 3년)	3.887(-0.004)
↑ 환율(USD)	1328.50(+4.10)